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1월 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1.(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1. 1.(월)	담당부서	무역진흥과, 수출입과
담당과장	박덕열 과장(044-203-4030) 이원희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윤삼희 사무관(044-203-4031) 정민규 사무관(044-203-4041)

백운규 산업부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 연간 수출액 사상 최대 실적 기록 [5,741억 달러, 잠정*] -
- '18년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

※ 정확한 수치는 1.1(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 참고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행보로 수출의 최일선인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 인천국제공항 방문 개요 >

□ 일시 / 장소 : '18.1.1일(월) 10:00~10:50(50분) / 대한항공 수출화물터미널

□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무역투자실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대한항공 서준원 지점장

○ 2001년 문을 연 인천공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자 세계적으로 **국제화물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공항중 한곳**으로 성장해왔다.

* '16년 통계기준 ACI(국제공항협의회)의 국제 화물량 순위에서 260만t으로 세계2위, (1위 452만t 홍콩 첵락콕 공항, 3위 259만t 두바이공항)

○ 백 장관은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근무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 백 장관은 "**지난해 우리 수출**은 **'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61년만에 사상 최대 실적**인 **5,741억 달러**(전년 대비 15.9%↑)를 기록했으며, **역대 최단 기간 내 수출 5,000억 달러 돌파**(11.17일, 5,012억 달러)했고, '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를 회복**하는 등 **기록적인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 "이를 통해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 **전 세계 수출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에 안착했다."고 밝혔다('17.1~9월 누계', WTO).

* 전 세계 교역은 주요 71개국(전 세계 교역의 90% 차지) 실적 기준으로, 추후 전체 국가 실적 기준으로 발표시 교역·수출 비중이 근소하게 조정될 가능성

○ 백 장관은 **수출 증가요인**에 대해, "①**세계경제·교역 회복세**, ②**유가 상승** 등 대외적 요인과, ③**13대 주력 수출품목** 중 **대부분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는 등 수출 품목 다변화**, ④**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 수출 증가**로 **지역별 고른 수출 증가세**, ⑤아세안·인도·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에 따른 **시장 다변화 진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북핵 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 백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 "올해는 **세계 경기 및 교역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은 **원화 강세·고금리·유가 상승 등 '신(新) 3고 현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에 따른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러한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하여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백 장관은 새해 첫날임에도 수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현장 근로자에게 감사의 말과 격려를 하며**

○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출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윤삼희 사무관(☎ 044-203-40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